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당한 판결이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지난 4개월여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광장을 지키며 사력을 다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소추를 가결시키고 마침내 파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025년 4월 4일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도한 폭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내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과 배제, 극단적 혐오를 조장해왔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악마화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장애인예산 증액보다 부자감세에 혈안이 되어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란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담론과 시대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장기간의 국정공백으로 무너진 민생경제 안정화에 힘을 쓰는 것은 물론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사태를 비롯해 각종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수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260만 장

애인을 대변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가치 아래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포용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상황이 사회적 약자에게만 불공평해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